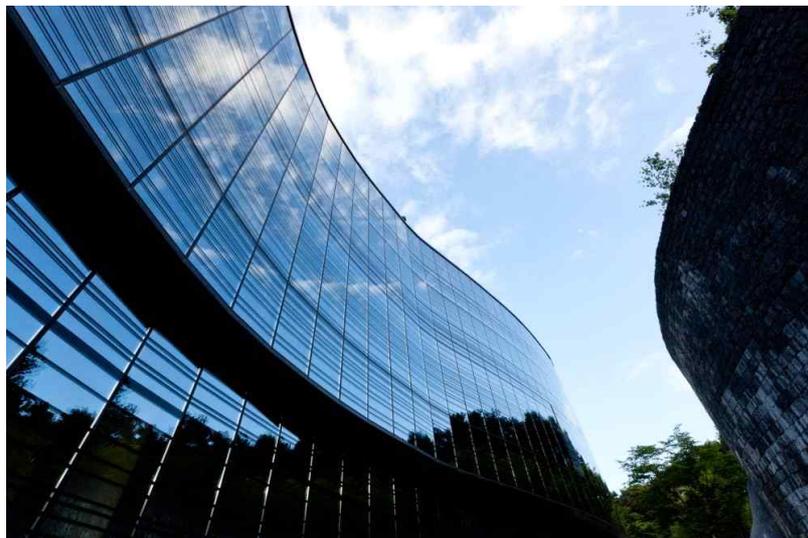


##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프로젝트 예술 공유지, 백남준 <i>Art Commons, NamJunePaik</i>		
문의	- 사업문의 : 이채영 (t. 031-201-8542, m. 010-2386-8024) - 취재문의 : 강연섭 (t. 031-201-8559, m. 010-2906-1746)		
자료	이메일에 기재된 링크로 다운로드		
배포	2018. 9. 3. 월	쪽수	총 14매

###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프로젝트

## 예술 공유지, 백남준 Art Commons, NamJunePaik



- ▶ 백남준아트센터, 2018년 10월 8일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예술 공유지, 백남준”을 모토로 전시, 심포지엄,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실험적 프로젝트 진행
- ▶ 지난 10년간 백남준아트센터의 전시, 퍼포먼스, 교육 등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참여하는 개관 10주년 기념전 《#예술#공유지#백남준》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존재론과 소통방식 탐색
- ▶ 2018년 10월 12, 13일 진행되는 국제학술심포지엄 《미래미술관: 공공에서 공유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하여 전 세계 미술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유지 운동에 대한 실천을 고민하는 자리 마련
- ▶ <#공유지실험>, <#공동체실험>, <#관점실험>으로 구성된 《#메타뮤지엄#프로젝트》를 통하여 뮤지엄의 공유지(Commons)로써의 확장 가능성 모색

##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프로젝트 - 예술 공유지, 백남준



2018년 10월 8일, 백남준아트센터는 개관 10주년을 맞는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이를 계기로 미래의 미술관의 역할에 질문을 던지고 미술관이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고자 한다. 백남준아트센터 구성원들은 지난 10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예술이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 맺는 관계에 대한 고민 속에서 개관 10주년 사업 모토를 “예술 공유지, 백남준”으로 정했다.

“예술 공유지, 백남준”은 “예술은 사유재산이 아니다”라고 말한 백남준의 선언과 맞닿아 있다. 백남준은 「글로벌 그루브와 비디오 공동시장」(1970)이라는 글을 통해서, 비디오를 유럽공동시장의 원형처럼 자유롭게 소통시켜 정보와 유통이 활성화되는 일종의 ‘공유지(Commons)’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백남준이 몸담았던 예술 공동체 ‘플럭서스’가 지향했던 예술의 민주적 창작과 사용에 대한 고민과도 연결되며, 앞으로 백남준아트센터가 도전할 다음과 같은 실험 방향으로 확장된다.

첫째, 공유지(공유재)는 인류에게 주어진 물과 공기, 산과 바다와 같은 자연 자원에서 비롯하여 공동체가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함께 관리하는 공통재이다. “예술 공유지, 백남준”은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미술관이라는 공공의 공간이 어떻게 공유의 공간-공유지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둘째, 공유지는 백남준아트센터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미술관의 소장품 그리고 미술관에 축적된 유무형의 지식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예술 공유지, 백남준”은 이러한 공유지를 미술관 노동자와 자원봉사자, 예술가, 관람객 그리고 지역민들이 공동의 규율 아래 함께 사용하고 나누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는 백남준아트센터의 건립 미션은 백남준과 같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닌 젊은이들이 점유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예술 공유지, 백남준”은 “다중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가 공명을 이루는 공간”(파스칼 길렌)으로서의 미술관, 공론장으로 기능하는 미술관의 미래가 이러한 백남준아트센터의 미션과 어떻게 조응할 수 있을지 실험하고자 한다.

자본주의로 인한 전 지구적 부채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미술관의 역할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 하는 것이라는 공감의 전시와 개관 10주년 프로젝트를 통해 공명하길 기대한다.

## · 개관 10주년 프로젝트 구성 및 소개

백남준아트센터의 개관 10주년 프로젝트는 한 번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실험을 통하여 미래미술관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이번 개관 10주년 각 프로젝트명은 백남준아트센터가 예술 공유지로서 지향하는 바를 핵심어로 선정, 단어 앞에 해시태그(#)를 붙여 표기하였다. 해시태그란, 온라인상에서 특정 단어 또는 문구 앞에 '해시(#)'를 붙여 연관된 정보를 한데 묶을 때 쓰는 일종의 꼬리표를 다는 기능이다. 사용자들은 해시태그를 이용함으로써 특정 주제를 보다 손쉽게 공유하여 같은 관심사를 지닌 사용자들끼리의 활발한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이렇게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으는 해시태그의 기능에 착안하여 각 프로젝트명에 해시태그(#)를 달아 공공의 목소리가 모이는 '예술 공유지'로써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관 10주년 기념전시 《#예술#공유지#백남준》과 예술 공유지 실험의 이론적 실천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 《미래미술관: 공공에서 공유로》, 교육과 퍼블릭 프로그램이 결합한 공동체와 공유지 실험 프로젝트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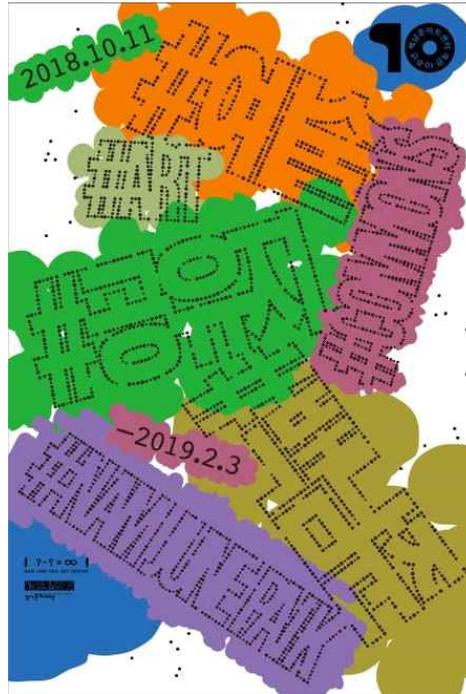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2월 3일까지 진행될 개관 10주년 기념전 《#예술#공유지#백남준》은 예술의 새로운 존재론과 소통방식을 탐구한다. 백남준을 비롯한 12명(팀)의 작가들은 구전되어오는 공동체의 노래, 관객의 목소리로 만들어지는 말과 소리들, 도시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공연들이 보여주는 '공유재로서의 예술'에 대한 탐구와 우리 삶의 공유지에서 발생하는 '비극'과 '희망'을 가로지르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2018년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 될 국제학술심포지엄 《미래미술관: 공공에서 공유로》는 미래의 미술관이 공유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미학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조건들을 점검하고, 현재 미술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유지 운동에 대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운영되는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뮤지엄이라는 현재의 의미를 넘어 함께 사유해보고, 변화의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한다. 백남준아트센터가 공공기관을 넘어 공유지(Commons)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공유의 기본 요소인 '자원'과 '커뮤니티'를 '물리적 공간'과 '사람들'로 상정하고, 첫 번째 <#공유지실험>에서는 공간을 직접 제작하고 사용해보며 자원(공간) 공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두 번째 <#공동체실험>은 동료, 친구 혹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함께 백남준아트센터를 둘러싼 공동체의 범주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관점실험>을 통해서도 미술관 속으로 다양한 시각들을 가져와 각각의 관점을 전환·수집·교환 해보며 서로 다른 의견이 공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백남준아트센터는 이 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하여 프로젝트들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정보가 또 하나의 온라인 공유지(Commons)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특별한 웹 페이지 [www.njp10.com](http://www.njp10.com) 은 9월 중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전시  
《#예술#공유지#백남준》



- 전 시 명 :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0주년 기념전 《#예술#공유지#백남준》
- 전시기간 : 2018. 10. 11~2019. 2. 3
- 기획 및 진행 : 이채영, 이수영, 이세정
-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1, 2층 전시실
- 참여작가 : 백남준, 요셉 보이스, 박이소, 블라스트 씨어리, 안규철, 언메이크 랩, 리미니 프로토콜, 다페르튜디오 스튜디오, 옥인 콜렉티브, 남화연, 파트 타임 스위트, 정재철, 히만 청
- 주최 및 주관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아트센터는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예술 공유지, 백남준”이라는 모토를 기반으로 예술의 새로운 존재론과 소통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작가들의 작업으로 공유지로서의 미술관의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예술은 사유재산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비디오 아트를 공유지(Commons)로 바라본 백남준의 전복적인 사유를 추적한다. 비디오의 국제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비디오 공동시장”을 꿈꿨던 백남준의 생각을 담은 실험 <비디오 코문>을 비롯하여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통해 보여준 미디어에 대한 관객과 예술가의 개입과 상호작용, 그리고 그 지적 재산을 공동의 것으로 남겨둔 백남준의 선구적인 아이디어를 관객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비롯하여 “모두가 예술가”라고 칭하며 삶 자체를 예술로 보았던, 그리고 예술이 지닌 정치적 혁명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요셉 보이스의 작업으로 자본화된 예술 안에서 새로운 예술의 존재론을 제시한 선구자들의 사유를 보여준다.

《#예술#공유지#백남준》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지난 10년간 백남준아트센터 전시, 퍼포먼스, 교육 등에 참여했던 작가들로, 10년간의 백남준아트센터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공유지'를 주제로 안규철, 옥인 콜렉티브,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언메이크랩, 정재철 작가가 신작을 선보이게 된다. 남화연의 <임진가와>는 구전되어오는 공동체의 노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공동의 기억을 발굴한다. 리미니 프로토콜의 <100% 도시> 시리즈는 각 도시의 시민 100명이 참여하여 그 도시를 구성하는 인구와 성별, 재화와 환경에 대한 통계를 시민들의 연기로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100% 광주>와 <100% 암스테르담> 두 도시에서 행해진 퍼포먼스 비디오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정재철은 바다라는 인류 공통의 공유지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보고서를 통해 공유지에서 발생하는 '비극'과 '희망'을 가로지르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박이소, 블라스트 씨어리, 파트 타임 스위트, 히만 청은 인류 공통재의 풍경과 지역사회와 관객의 상호작용을, 그리고 도시개발과 그 속에서 발견된 공유지의 활용에 대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고민을 개진한다.

또한 《#예술#공유지#백남준》전의 내부에는 별도의 아카이브 전시 <#백남준아트센터 #10년 #아카이브>를 아트센터 1층에 선보인다. 이 섹션에서는 백남준아트센터의 10년을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들과 통계 분석과 함께, 지난 10년 동안 아트센터가 기획한 전시, 교육, 학술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퍼블릭 프로그램들의 사진, 그래픽, 출판물을 전시한다. 또한 아트센터에서 진행했던 퍼포먼스 영상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과 정보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동시에 제공한다. 아카이브 전시에서는 비선형적이고 유기적으로 배열된 아카이브를 통해 아트센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백남준아트센터 #10년 #아카이브>는 아트센터가 보관하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기록들을 통해 급변했던 지난 10년의 한국 동시대미술의 지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 • 주요 출품작

### 1. 백남준, <코끼리 마차>, 1999-2001, 혼합매체, 293x633x153cm



2. 백남준, <굿모닝 미스터 오웰>, 1984,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60분



3. 백남준, <비디오 꼬문>, 1970,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4시간



4. 백남준, 슈야 아베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1969/1972, 신디사이저(기계)



2018 국제학술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10'  
《미래미술관: 공공에서 공유로》



- 진행기간 : 2018 10월 12일, 13일(총 2일)/ 금요일(10:00-17:00), 토요일(13:00-17:00)
- 기 획 : 이수영
- 문 의 : 031-201-8553 / njp10gift@njpartcenter.kr
- 참 가 비 : 무료
- 참가신청 : 온라인 신청(www.njpartcenter.kr)
- 주최 및 주관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아트센터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미래미술관: 공공에서 공유로》를 주제로 2018년도 국제학술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10'을 개최한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백남준의 선물' 국제학술심포지엄 시리즈는 백남준아트센터의 1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이곳에서 벌어질 '새로운 존재와 소통 방식'으로서의 공유지 모델'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는 자리로 기획 되었다.

심포지엄의 시작은 먼저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비포'가 말했듯이 전 지구적 부채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머잖아 폭력과 비참의 시대가 찾아온다면, 이 부채를 갚는 유일한 길은 미래를 '성장'으로 보는 바로 그 관념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발표를 통해서 미래의 미술관에서 가능한 기획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미학적, 경제적, 기술적 접근' 외에도 현재 전 세계 미술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유지 운동에 대한 실천적 해석이 동반된다. 먼저, 한국의 제도권 미술 기관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과 공유'의 사이에서 가능한 실천적 가능성들에 대한 흥미로운 화두를 던지고, 동시대 미술관에서 일어나는 큐레이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천에 대해 고민하고 그 새로운 미래 전략에 대한 가능성을 기획자와 작가의 입장에 서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심포지엄은 여러 발표자들의 심도 깊은 발표와, 모두 모여 토론하는 라운드 테이블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발표 후에는 관객들이 발표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공유'라는 큰 주제 아래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의 결과물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웹에서 제공되며 단행본으로도 출판될 예정이다.

\*심포지엄 참가 및 무료 셔틀버스는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www.njpartcente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 심포지엄 일정

일시	시간	강연명	강사
10/11 (금)	10:00 - 11:00	미래 이후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11:00 - 12:00	'비포'와의 대화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3:00-14:00	사유화에 저항하는 예술	조선령 (부산대학교 교수)
	14:00-15:00	미래미술관: 인간, 사물, 동맹의 실험장	임태훈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교수)
	15:00-16:00	예술, 공동체, 경제	마시밀리아노 몰로나 (런던 골드 스미스 강사)
	16:00 - 17:00	종합토론	
10/12 (토)	13:00 - 14:00	공유(公有)와 공유(共有) 사이: 미술관 사용법을 위한 제도적 상상들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4:30 - 16:00	함께 먹고 마시자	최빛나 (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 디렉터)
	16:00 - 17:00	탈학습과 미래	최태운 (작가)
	16:00 - 17:00	루앙루파의 공유 전략	아데 다르마완 (루앙루파 디렉터)
	16:00 - 17:00	종합토론	안소현 (아트 스페이트 풀 디렉터)

\* 상기 프로그램은 백남준아트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 발표자 소개

####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이탈리아 자율주의 운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철학자다. 1975년에 <아/트라베르소>라는 전위적인 잡지를 창간하였고, 1976년에는 이탈리아 최초의 자유라디오 해적 방송국 '라디오 알리체'를 세웠다. 2000년에는 사회적 행동주의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탐구하는 메일링 리스트 '레콤비난트'를 만들었으며, 2002년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미디어 독재에 맞서는 텔레스트리트 운동을 조직하여 '오르페오 TV'를 건설하는 등 다양한 미디어를 넘나드는 미디어 이론가이자 활동가로 평가받았다. 90년대부터 정신병리학, 정보

테크놀로지와 자본주의 등에 대한 비판적 이론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에는『미래 이후』, 『붕기(시와 금융에 대하여)』,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등이 역서로 출판되었다.

### **이진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본명은 朴泰昊, 1987년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이란 책을 내면서 사용했던 필명 이진경이 뜻밖에 허명을 얻으면서 본명은 잃어버렸다. 광주시민들의 유령이 떠돌던 시절에 대학에 들어가, 그 유령들에 홀려 강의실 아닌 거리에서 대학시절을 보냈고, 결국 '직업적 혁명가조직'을 만들겠다는 레닌주의자가 되었다. 1990~91년, 감옥 안의 사회주의자에게 덮쳐온 사회주의의 붕괴 덕분에 심연을 보았고, 거기서 얻은 물음을 따라 살고, 사유하고, 쓰고 있다. '사회주의'와 '근대성'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그 물음은 공동체에 대한 탐색을 거쳐 존재론에 대한 사유로 변신하며 나아가고 있다. 『맑스주의와 근대성』,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등이 저서가 첫째 질문을 다룬다면, 『코문주의』는 공동체의 탐색이 존재론으로 넘어가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불온한 것들의 존재론』은 나름의 존재론적 사유를 펼치려는 시도라 하겠다. 최근에는 '넘어섬의 윤리학'에 해당한다고 믿는 책 『삶을 위한 철학수업』 그리고 불교철학을 현대철학으로 재해석한 책 『불교를 철학하다』를 썼다. 현재는 '존재자의 존재론'에서 '존재의 존재론'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다시 길을 찾고 있다. 준비중인 재일 시인 김시종의 시와 사상에 대한 책이 그 중 하나다. 주 활동영역은 지식공동체 '수유너머 104'이고, 직업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이다.

### **조선령(연구자, 전시기획자,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학과에서 "라캉의 근본환상 개념과 예술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신분석학에서 출발하여 현대미술과 이미지 문화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주체성, 테크놀로지, 이미지, 권력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라캉과 미술>이 있고 <이미지 장치 이론>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드림 하우스>, <기념비적인 여행>, <카타스트로폴로지>, <무용수들> 등 예술적 장과 사회적 장의 교차점을 다룬 전시들을 기획해왔다.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는 아카이브를 '사물들의 알레고리'로 해석한 전시 <알레고리, 사물들, 기억술>(국립현대미술관)이다.

### **임태훈(미디어비평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융복합대학 기초학부 교수)**

저서로 『검색되지 않을 자유』, 『우애의 미디어로지』,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등이 있다.

### **마시밀리아노 몰로나(런던 골드 스미스 대학 강사)**

작가이자 영화 제작자 그리고 인류학자다. 경제학과 인류학 분야에서 다방면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예술과 정치 경제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로 경제 기관에서 이탈리아,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에서 광범위한 현장 작업을 수행했으며 참여 및 실험 영화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발전과 정치 정체성 간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의 연구는 교육학, 예술 및 행동주의의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골드스미스 대학의 인류학과 강사로 있다.

###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대학원에서 미술사와 박물관/미술관학,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등을 전공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 강의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정책연구를 하며 정책/행정 분야에서 국가와 예술, 정치와 정책이 재규정되는 방식에 보다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간에

공부해온 각각의 분과학문들이 교차되는 접점으로서 제도와 제도비판, 예술운동과 시민권, 관료제와 문화정치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환경과 문화다양성, 젠더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 **최빛나(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 디렉터)**

위트레흐트 네덜란드(Utrecht, the Netherlands)에 위치한 실험과 지식 생산을 중심으로 한 미술기관인 카스코(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의 디렉터이다. 기존의 전시 방식을 깨고 다층적이며 공동 연구 및 작업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카스코에서의 대표적인 기획으로 '대가사혁명(The Grand Domestic Revolution)'과 '우리가 타임머신이다(We Are the Time Machines :Time and Tools for Commoning)', '일본 신드롬(Japan Syndrome)' 등이 있다. 아른헴(Arnheim)에 있는 더치 아트 인스티튜트(Dutch Art Institute)에서 예술 석사 프로그램의 교수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 25개 이상의 예술기관들의 초지역적 네트워크인 Arts Collaboratory의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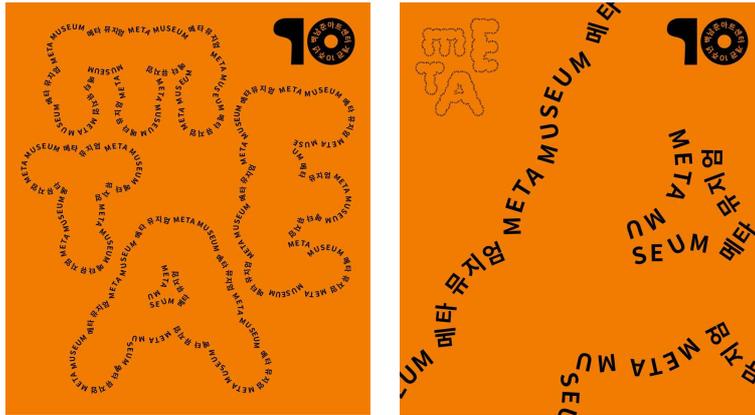
### **최태윤(작가)**

최태윤은 뉴욕과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가, 교육자, 활동가이다. 그의 예술적 실천에는 공공 장소에서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공연, 전자, 그림 및 설치가 포함된다. '어반 프로그래밍 101(Urban Programming 101)'과 '안티-마니페스토(Anti-Manifesto)' 등 예술가의 저서를 발표했으며, 뉴욕 아이벌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Eyebam Art and Technology Center)에서 스피커스 코너(Speakers Corners)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으며, 프로젝트는 상하이 비엔날레, 상하이 (2012) 및 뉴욕 휘트니 미술관 (2015)에서 상영된 바 있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와 M.S. 한국 과학 기술원 및 뉴욕 대학(Tisch School of Arts)에서 인터랙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포에틱 컴퓨테이션(Poetic Computation) 학교를 공동 설립하여 세션을 구성하고 전자, 도면 및 사회 실습에 관한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와 평범의 장벽을 제거하고 예술과 기술 내 접근성과 포용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아데 다르마완(루앙루파 디렉터)**

루앙루파는 2000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6명의 작가로 구성된 예술기관이다. 현재는 작가 뿐 아니라, 기획자, 디자이너, 건축가, 역사학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자카르타의 도시 생태와 사회, 정치, 경제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도시의 개발과 재개발의 문제에 예술이 개입하고, 공공예술의 형태에 시민들을 연계하며 페스티벌 등을 통한 공간 점유에 대중이 참여하는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은 비영리 기관으로서 인도네시아 전반의 미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며, 전시 뿐 아니라 워크숍, 학술 연구, 출판,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도시의 맥락 안에서 예술과 문화의 공유를 실험하고 실천하고 있다.

##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MetaMuseum #Project
- 기 간 : 2018년 8월 ~ 2019년 2월
- 장 소 : 백남준아트센터
- 참여작가 : 김성원, 이근세, 이주연, 김준, 최태윤
- 기획 및 운영 : 김보라, 염현주, 이세연, 조민화
- 주최 및 주관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는 몇 가지 질문에서 시작한다.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공공의 장소는 그동안 어떤 곳이었을까? 앞으로 어떤 장소가 될 수 있을까? 미술관은 누구를 위한 곳일까? 어떤 사람들을 환영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했을까?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왔을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지켜야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기 위한 이 물음들은 지금 당장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자, 예술 공유지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실험으로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백남준아트센터가 공공기관을 넘어 공유지(Commons)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은 3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공유지실험>이다. 공유의 기본 요소인 '자원'과 '커뮤니티'를 '물리적 공간'과 '사람들'로 상정하고, 공간을 직접 제작하고, 사용해보며 자원(공간) 공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동료, 친구 혹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실험>은 백남준아트센터를 둘러싼 공동체의 범주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관점실험>을 통해서도 미술관 속으로 다양한 시각을 가져와 각기 다른 관점을 전환·수집·교환 해보며 서로 다른 의견이 공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정보가 또 하나의 공유지(Commons)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리스어 'μετά'에서 유래한 '메타meta-'는 '넘어서', '초월한'이라는 의미 혹은 '변화'를 뜻하는 접두어로 뒤따라오는 단어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킨다. 백남준아트센터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메타뮤지엄 #프로젝트》를 통해 뮤지엄이라는 현재 의미를 넘어, 변화의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한다. 이러한 《#메타뮤지엄 #프로젝트》의 전 과정은 백남준아트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 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 모든 뮤지엄이 고민해야 할 역할과 방향에 대해 함께 사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 세부내용 소개

### ○ #공유지실험 - #공간, #워크숍, #사용

<#공유지실험>은 단어 뜻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다. '미술관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누가 사용하는 공간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공간의 제작과 사용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다**. 미술관 내부는 공공의 공간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새로운 공유 **#공간**을 접근성이 높은 야외에 제작한다. 8월 중 공간 기획·설계·디자인이 진행되며 적정기술·기술놀이 교육연구가 김성원과 작가 이근세, 이주연이 함께한다. 공간의 제작은 9-10월 중 **#워크숍**의 방식으로 통해 진행한다. 기본 설계로 디자인 된 모듈을 이용해 누구나 공유지의 제작자가 되고, 공간 제작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완성된 공간의 **#사용**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자 정확한 용도를 정하지 않은 공간으로, 휴식/놀이/퍼포먼스/워크샵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사용에 대한 예약은 공간이 완성되는 오는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사전신청 할 수 있다.

### ○ #공동체실험 - #공모, #동료, #친구

<#공동체실험>은 '미술관의 공동체는 누구인가?', '공동체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다양한 관계 속에 존재한다. 센터의 직원, 자원봉사자, 관람객, 교육 참여자, 도서관 이용자, 용인시민, 경기도민, 예술계 관계자, 혹은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불특정 다수까지. 공동체 실험을 통해 다양한 관계 속에 놓인 미술관의 공동체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각각의 공동체가 미술관이라는 공유지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지 실험한다.

**#동료**는 백남준아트센터 내부 '공유화(Commoning)' 과정이다. 미술관이 공유지로서 기능하고 이를 둘러싼 공동체의 확장을 지향한다면, 먼저 미술관 내부 공동체인 직원 간에 공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유(지)에 대한 내부 워크숍을 진행해왔으며, 오는 9월부터는 동료들이 매일 같은 공간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로의 가치와 의견을 나누고 논쟁과 실천을 행하기 위한 실험으로써, 백남준아트센터가 진정한 공유지가 되기 위한 작은 첫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친구**는 백남준아트센터의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실험이다. 도슨트, 도서관 자원봉사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가장 자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고, 다양한 영역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일을 수행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미술관을 매개로 누구나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과거 활동하였거나, 잠시 활동을 멈추었거나, 지금 활동 중인 모든 봉사자들이 백남준아트센터를 매개로 다시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인 **홈커밍데이**를 11월 중에 진행한다. 이 외에도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공모**는 불특정 다수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예술 공유지, 백남준"이라는 개관 10주년의 모토를 중심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고 백남준아트센터와 관계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 공모다. 단, 1인의 아이디어가 아닌 소모임 형태여야 하며, 이를 통해 백남준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실행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 맺기를 원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공모는 8월 13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그룹은 내년 2월까지 실행에 필요한 상금과 공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관점실험 - #전환, #수집, #교환

<#관점실험>은 미술관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을 수집하고, 전환 또는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가 서로 다른 시각이 모이고 공유되는 광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실험이다.

**#전환**은 공동체를 위한 탈(脫)학습 워크숍이다. **탈학습(Unlearning)**은 지금까지 습득하거나 만들어온 기존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이로부터 다시-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와 참여형 퍼포먼스, 협업 프로젝트로 구성된 워크숍은 작가이자 교육자인 최태운이 기획·진행한다. 예술가, 교육자, 큐레이터, 그리고 탈학습에 관심 있는 이들과 함께 미술(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생각, 개념, 가치관의 경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질문해보고자 한다. 워크숍은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연속으로 이뤄지며, 참여자를 위한 문자통역이 지원된다.

**#수집**은 '장소 특정적 소리'와 '수집된 물질들'을 주제로 작가 김준이 기획·진행하는 미디어 워크숍이다. 참여자들은 백남준아트센터라는 주변 환경에서 소리와 물건을 자신의 관점으로 수집하고 이를 작품으로 만든다. 일상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각하게 하고 측정하는 사운드를 통해 보이지 않는 대상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예술행위로 주변 환경을 감각적으로 재발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워크숍은 가족, 노인, 교육자를 대상으로 그룹별 4회차씩 연속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10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된다. 워크숍 이후 참여그룹의 시각이 담긴 결과물은 전시의 형태로 공유된다.

**#교환**은 작품과 전시를 매개로 동시대를 함께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시각과 이슈를 교차해보고자 하는 실험이다. 기존 큐레이터가 전시를 기획하고 도슨트가 전시 해설을 통해 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자의 의도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전시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의미를 생성하고 전달 할 수 있는지 탐색해본다. 노인이 바라본 작품과 어린이가 바라본 작품은 서로 어떻게 다르게 읽힐 수 있는지, 청소년·지역민·활동가 등 여러 관점이 미술관으로 들어왔을 때 전시의 의미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이슈의 매개로서 미술관이 기능할 수 있는지 실험한다. 이는 백남준아트센터 10주년 기념전 《예술#공유지#백남준》을 중심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구성 및 일정

#메타뮤지엄 #프로젝트			
	#공유지실험	#공동체실험	#관점실험
8월	<b>#공간</b> 공공의 공간인 미술관이 공유지로서 어떤 공간이어야 하며,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실험해보는 야외 공유 공간 제작 #김성원 #이근세 #이주연	<b>#공모</b> 백남준아트센터 내-외에 위치한 다양한 관계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예술/공유지/백남준을 주제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와 실행 프로그램	
9월	<b>#워크숍</b> 공간을 직접 제작하고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해보는 공유 공간 연계 워크숍	<b>#동료</b> 백남준아트센터가 공유지로 기능하기 위한 내부 공동체(직원) 간 공유화 활동	

10월	<b>#사용</b> 공유 공간을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하고 함께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 운영하는 공유 프로젝트		<b>#전환</b> 관점 바꾸기. 예술 관련 전문가-매개자들이 함께 공유지로서의 '미술(관)'이라는 개념을 다시-사유해보는 탈학습(Unlearning) 워크숍 #최태운
11월		<b>#친구</b>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자원봉사자라는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지원 프로그램	<b>#수집</b> 관점 담기. 관찰과 수집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 인근을 탐색하며 일상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감각-표현하며 여러 결의 관점을 담아보는 워크숍 #김준
12월 ~1월			<b>#교환</b> 관점 교차하기. 어린이, 청소년, 지역민, 전문가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일반인이 자신의 시선으로 전시를 읽고 대중과 공유하는 프로그램

## ※관람안내

- 관람요금: 무료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7~8월 오전 10시 ~ 오후 7시)  
 ※ 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